

“농민을 위한 농협 만드는 것, 제 유일한 바램” | 김태영 전주농협 감사

“돈보다 덕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쌓은 덕이 지식과 후손들에게도 좋은 삶의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김태영 전주농협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평생 농업과 농민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농협인의 열정적인 삶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독배 마을에 추진 중인 유기견 동물 축사 설치 반대 주민 총회장에서 지난 7월 28일 밤에 만난 김태영 씨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흙냄새가 먼저 묻어오는 사람. 그는 스스로를 평생 농부라고 소개했다.

김 감사는 1988년 전주시 중인동 황소마을에서 태어나 인근 마을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

그는 선대로부터 200여 년 동안 농사만 지어온 집안의 5대 독자로 자랐다. “중인동에서 대대로 농사만 지었다”라는 그의 말에는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23살 앓던 청년 시절에 처음 트랙터와 콤팩트 이앙기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농업인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담보 능력이 없어 고모부의 보증으로 농기계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바닥을 누비며 직접 농사를 지었고 지금은 자신이 소유한 1만6,000여 평의 농지를 일구는 것은 물론 다른 농업인 소유의 농지 약 350마지기, 약 7만 평에 달하는 논을 관리하는 전문 농업인이 됐다.

그는 “짬있을 때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코피를 흘리면 논둑에 난 쪽으로 코를 막으면 저절로 코피 나는 것이 멎었다”며 필자를 보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했던 청춘을 다 바치며 지난하게 지내온 한 농업인의 지열한 삶이 숨어 있었다.

김 감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업에 대한 사랑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1남 2녀의 자녀 가운데 아들은 3년 전부터 자신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업을 잇고 있고, 장녀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뒤 청년 창업농에 선정돼 전문 농업인의 길을 걸고 있다.

그는 “우리 가족 모두가 농도인 전북에서 전문농업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농업만큼이나 그의 인생을 채운 또 하나는 농협인 활동이다.

김 감사는 자신을 “뺏속까지 농업인이자 농협인”이라고 표현한다. 비록 농협 활동은 40대 후반부터 조금 뒤늦게 시작했지만, 진정성을 갖고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겠다는 신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전주농협 대의원을 거쳐 이사, 감사를 맡으며 전주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최근 전주농협이 추진했던 전주 에코시티 내 이마트 입점 건물 매입 계획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일은 그의 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600억 원이 넘는 대형 건물 매입안을 두고 그는 “조합원들의 자산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현재 해당 건물은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 감사는 “큰 규모의 투자는 기대수익뿐 아니라 위험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농협의 자산은 결국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바라보는 전주농협의 미래는 단순히 금융기관이 아니다.

그가 전주농협을 생각하며 농협인을 위한 헌신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원대하다.

그는 고령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요양시설 등 다양한 회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문경서 단체전 정상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의성군청과 문경시청, 용인시청, MG새마을금고를 차례로 꺾고 문경 모래판을 제패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6 문경요미자장사 씨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문경시씨름협회가 주관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16강에서 의성군청을 4대1로 제압한 데 이어 8강에서는 개최지인 문경시청을 4대2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도 용인시청을 4대2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MG새마을금고였다. 단풍미인씨름단은 마지막 승부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해 4대0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왕정동, 취약계층 3가구에 에어컨 설치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민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관내 취약계층 3가구를 발굴해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고 밝혔다.



김민주 왕정동장은 매일 취약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냉방기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 지원은 왕정동이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비 집중 점검 대상자 가정방문’ 과정에서 이뤄졌다. 다. 지원 대상 가구들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외부 열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으로,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체온조절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포함돼 온열질환 발생 및 민성질환 악화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왕정동은 현장 확인 즉시 해당 가구에 에어컨을 긴급 지원하고 설치까지 완료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사내방

- ▲조종덕 전주시 정무기획보좌관
- ▲김경태 전주시 정무기획보좌관실 소통비서관
- ▲윤현수 전주시 공보관리팀장

/이만호 기자

이원택 도지사, 전북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위촉

도민 기부 참여 확대 · 복지 사각지대 지원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원택 도지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6대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도민의 나눔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 전 지사에 이어 제6대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이원택 도지사,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도내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은 도민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개인과 기업, 기관·단체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는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도민과 기업의 성금을 모아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위기가정, 재난 피해자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희망나눔캠페인과 착한가게, 나



눔리더 등 도민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도민과 기업, 기관의 소중한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사회에 온기… 효자2동, 취약계층에 ‘사랑앓 밀반찬’ 전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밀반찬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5일 협의체 특화사업인 ‘사랑앓 밀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20세대에 국과 밀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콩나물국과 돼지불고기, 열무김치 등 영양을 고려해 마련한 밀반찬을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펴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최현오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삼 효자2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밀반찬을 준비하고 직접 전달해 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효자2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앓 밀반찬 나눔’ 사업은 지병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국과 밀반찬을 지원하는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특화사업이다.

/이만호 기자



JB스퀘어에서 ‘2026 전북현대FC 팬 사인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5일 본점 1층 JB스퀘어에서 ‘2026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리그 10회 FA컵 6회 우승을 기록한 전북현대모터스FC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팬 사인회 참가 신청은 전북은행 속뱅크 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1,253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은행은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박지수 김승섭, 모파, 이동준 등 주요 선수들이 참석해 팬들에게 직접 사인을 해주고 기념 촬영과 인사를 나누는 등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을 찾은 팬들은 선수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큰 호응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단양종합건설,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고창군에 디에스통탄의 최첨단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시설을 짓고 있는 (주)단양종합건설이 5일 고창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주)단양종합건설은 고창산업혁신단지 내 디에스통탄 시공을 맡으면서 고창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에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공감해 이번 기부에 참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해리농협, 고창군에 소금사탕 1000봉 기탁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5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지친 고창군민들의 건강을 응원하기 위해 고창군에 소금사탕 담소 1,000봉(약 4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소금사탕 담소는 해리농협에서 만든 소금사탕으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군민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등, ‘햇빛봉사단’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5일 장수군 일원에서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민호)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야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햇빛봉사단’ 캠페인을 실시했다.

햇빛봉사단 활동을 통해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통한 농어촌 지역 야간 안전 확보, 전기 분야 직원 동행을 통한 가정 방문 전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날, 총 45가구 중 공사에서는 19가구를 지원했다. 이 활동은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 개선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ESG 경영 우수 사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장수=고관호 기자